

미션 레나타 광주 첫 공연

29일 상무지구 ASA커피숍
30일 운림동 우제길 미술관



“상송” 타고 프랑스 여행 떠나요



싱어송 라이터 미션 레나타(37·본명 이 미선)는 파리와 한국을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던 재즈 가수다.

광주 출신으로 수피아여고를 거쳐 서울 예전에서 연극을 전공한 그녀는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던 중 스물 여섯의 나이에 동경하던 파리로 날아갔다. 4년간 자크루크 국제연극학교와 벨기에 라사드 연극학교에서 공부한 후 귀국한 게 2007년이다.

뮤지컬계로 복귀해 ‘빨래’를 공연하던 그녀는 함께 공연했던 재즈 밴드의 음악에 푹 빠져버렸다. “음악을 제대로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2010년 다시 파리로 향했다.

유럽 최초의 재즈학교인 자크 르 파리 재즈학교(CIEcole de musiques actuelles de Paris(CIM), 보비니 음악학교에서 공부하던 그녀는 퐁피두 센터 앞에서 친구들과 거리공연을 하며 음악의 즐거움에 빠졌다. 그녀는 2013년 ‘미션’이라는 본명과 ‘레나타’라는 세례명을 합친

광주 수피아여고 졸업 자크 르 파리 재즈학교 출신 싱어송 라이터 ‘장밋빛 인생’ 등 공연

‘레나타 미션’으로 ‘엄마표 깎이 일곱장’ 등 9곡이 담긴 첫 앨범 ‘이삿짐을 싸면서’를 내놓으며 한국 활동을 시작했다.

레나타 미션이 29일(오후 8시 상무지구 ASA 커피숍), 30일(오후 3시 운림동 우제길 미술관) 광주에서 공연을 갖는다. 지난 2013년 광주시립극단의 ‘오델로’에 음악감독으로 참여하며 노래를 선보인 적은 있지만 본격적인 콘서트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연의 제목은 ‘상송 타고 떠나는 프랑스 여행’이다. 프랑스 영화 ‘남과 여’ 주제곡, ‘장밋빛 인생’, ‘세시봉’, ‘자바네즈 춤’, ‘일하기 싫어’,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등 다양한 프랑스 상송을 만날 수 있는 공연이다. 프랑스어 자작곡과 내년에 발매 예정인 2집 수록곡들도 들려줄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이야기가 있는 무대로 꾸며진다. 낯선 프랑스말과 친숙해 지는 과정이다. “사람들이 프랑스어를 낯설어 하기 때문에 스토리텔러가 돼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진행되는 공연이에요. 아름다운 멜로디의 상송을 그냥 들어도 좋지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고 들으면 훨씬 감동적이에요. 제가 이야기꾼이 돼 곡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프랑스어 가사, 재즈적 기반에 뮤지컬의 표현력이 가미된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어우러진 음악을 그녀는 ‘스토리텔링 프렌치 재즈’라고 칭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자크 르 파리 재즈학교에서 함께 공부한 아코디언리스트 변정희씨와 베이스 이성환, 피아니스트 안현진, 드럼의 황용하씨가 함께 출연해 풍성한 음악을 들려준다.

커피와 함께 즐길 수 있는 ASA 커피숍 공연은 1만원, 우제길 미술관 공연은 무료다. 문의 010-3378-751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데

며칠 전 신문을 읽다가 흥미로운 기사가 눈에 띄었다. 홍콩 서구문화지구(West Kowloon Cultural District·WKCD)의 새로운 수장으로 취임한 던컨 페스코드의 인터뷰였다. 최근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예술공연전시장협회에 참가한 그를 단독취재한 기사였다. 수많은 기사들 중에서 유독 그의 인터뷰에 ‘꽃한’ 이유는 2년 전 광주일보 창간 61주년과 예정 북간호 특집 기획으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과 유사한 WKCD를 취재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WKCD는 홍콩 정부가 ‘아시아의 문화허브’를 내걸고 세계적인

지난 30년 동안 홍콩정부의 국제프로젝트들을 추진해 온 정통 행정관료이기 때문이다. 그의 ‘낙점’을 두고 일각에선 우려를 표시했지만 미국의 대중문화예술잡지 ‘버라이어티’ 등에서 “WKCD가 드디어 현실을 직시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사실 WKCD는 비효율적인 공간 컨셉과 천문학적 예산, 난해한 콘텐츠 등으로 지난 10년간 홍콩 정부의 발목을 붙든(bogged down) ‘애물단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홍콩 시민들은 현대미술과 컨템포러리 공연예술에 초점을 맞춘 콘텐트에 불만을 쏟아내며 ‘재

서구문화지구 vs 문화전당 (WKCD)

복합문화예술단지를 건립하기 위해 구룡해안반도 40ha(12만 평)에 공사비 3조 원을 들여 추진하는 국제사업이다. 지난 2006년 착공에 들어간 후 오는 2031년까지 현대미술관인 M+ 뮤지엄을 비롯해 중국 오페라 극장 등 17개의 문화인프라가 들어서게 된다. 마침 WKCD의 최근 상황이 궁금했던 터라 페스코드 인터뷰는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웠다.

페스코드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대표를 지낸 마이클 린치의 후임으로 지난 8월 제4대 WKCD의 최고경영자로 임명됐다. 워낙 전일자인 마이클 린치와 2대 대표 그레햄 세필드(전 영국 바비칸 아트센터 대표)가 세계적인 예술행정가들이었던 만큼 취임 당시 그의 ‘스펙’이 국제공연예술계의 시선이 쏠렸었다. 하지만 기사에 소개된 그의 이력을 본 순간 “왜 이 사람일까?”라는 궁금증이 일었다.

그도 그럴 것이 페스코드는 예술 감독 출신인 역대 CEO들과 달리

판짜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여기에는 국제적인 명성에 치중해 영입한 역대 수장들이 홍콩의 ‘정서’와 현실을 읽지 못하고 글로벌 마인드로 WKCD를 지휘해 온 것도 한몫했다.

그런 점에서 ‘페스코드 카드’는 성난 민심(?)을 달래고 WKCD를 홍콩시민들의 ‘문화플랫폼’으로 키우려는 변신의 첫 신호인 셈이다. 실제로 최근 공공프로그램의 일환으로 4주 동안 대중적인 내용의 경극과 월극으로 구성된 ‘중국 오페라 페스티벌’은 10만 여 명이 다녀가는 등 성황을 이뤘다.

페스코드는 인터뷰 말미에서 “문화지구를 새로 만드는 일은 소도시 하나를 짓는 것과 같다. 정부의 지원과 지역사회의 관심 못지 않게 콘텐츠, 시실, 운영시스템의 3박자를 동시에 갖춰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꼭 오는 11월 말 공식 개관을 앞둔 문화전당에게 던지는 메시지만 같았다.

<편지부국장·문화선임기자>

2015광주독립영화제 ‘구미가 땡긴다’

30일~11월1일 광주영상박물관 G시네마 51편 상영

2015광주독립영화제(집행위원장 조대영)가 30일~11월까지 광주영상박물관 G시네마에서 개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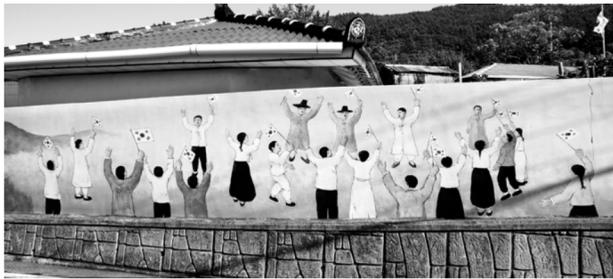
올해의 슬로건은 ‘구미가 땡긴다’로 지난해보다 8편이 늘어난 51편의 창작영화를 만날 수 있다. 전 작품 상영 후에는 ‘ 관객과의 대화’ 시간이 열린다.

개막작은 완도의 작은 섬 소안도의 역사적 진실을 추적한 김경자 감독의 ‘소안의 노래’다. 김 감독은 9년간 수시로 섬을 찾아 항일운동이 일어났던 곳이자 한국전쟁 전후 이념의 소용돌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소안도의 이야기를 진득하게 기록했

다.

페막작으로는 이순학 감독의 ‘로맨틱 블릿’이 선정됐다. ‘로맨틱 블릿’은 광주 출신 퍼포먼스 작가 김광철씨의 작품 활동을 기록한 다큐멘터리다. 김씨는 예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어 유럽 6개국, 아시아 4개국, 북미 2개국을 돌면서 퍼포먼스를 진행했고 이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한 이순학 감독이 다큐멘터리로 완성했다.

광주 지역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색선인 ‘광주1318’에서는 20편이 선보인다. 레미 학교의 ‘난 어린 남자 아이다’, 지혜학교의



‘소안의 노래’

‘쓰레기들’ 등 대학교 학생들의 작품이 눈에 띈다. 또 광주 지역 청소년영화동아리 ‘동그라미’와 ‘아우라’의 작품도 상영된다.

올해 ‘극영화’ 섹션에서는 ‘목에 칼’, ‘데미’, ‘삼포가는 길’, ‘상송 기류’, ‘순천만 아이들’ 등 16작품이 관객들을 만난다. 또 ‘다큐멘터리’ 섹션에서는 오윤주감독의 ‘광주극장’ 등이 상영되며 ‘광주의 배우’에

서는 김신혜 배우를 집중 조명한다.

특별 상영작 ‘공시상영’은 오픈예술지구 ‘바람’의 영상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15팀의 참여 작가가 만들어낸 15작품을 100분 분량으로 묶어 상영한다

광주독립영화협회 홈페이지(cafe.daum.net/indidi)를 통해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무료 관람. 문의 017-660-579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해양문화재연구소, 오늘 한·중 수중고고학 학술대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소재구)는 중국 국가문화유산수중문화유산보호 중심(센터장 송지엔총)과 공동으로 28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비파실에서 ‘제4회 한·중 수중고고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는 조선시대 조운선인 태안 마도4호선 수중발굴 성과와 올해 시범 적용됐던 수중로봇을

활용한 수중문화재 조사기술 연구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중국 측에서는 수중문화재 발굴 전용 인양선인 중국고고1호의 건조 과정과 탄생, 올해 후베이성 단정카우(丹江口)시 저수지 수중고고학 조사, 수중고고학의 이론과 실천, 수중문화유산 관리 등에 대해 발표한다. 문의 061-270-2062. /김홍희기자 kimhy@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제10-1097784호), 특허(제10-0562035호), 특허(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제10-1239196호), 특허(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후 시공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기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NAVER 주소: 대전프리모 - 광대

대산프리모가발